김영란법 3개월…버티기 힘든 외식업계

소비 위축에 송년 모임 급감…운영자 64% "매출 감소"

업종 전환 늘고 백화점 고등어·돼지고기 선물세트 첫 선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N 쇠고기 전문점은 최근 메뉴를 아예 양념 돼지갈비집으로 간판을 바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탓에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한 때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매장과 20여개에 달하는 방에 손님이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에 김영란법 시행마저 겹쳐 고가의 한우를 포기하고 다소 저렴한 돼지갈비로 메뉴를 변경했다.

27일 시행 3개월을 맞는 김영란법은 이처럼 외식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금지한데다 입법 초기 단속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심리 위축마저 겹치면서 외식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외식업체 4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절반 이상인 63.8%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생각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 경우 21.1%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과 일식집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탓에 연말 송년 모임이 줄면서 호텔 장소 대여 문의가 30~50%가량 줄어들고 일식집의 매출도 많게는 절반 가량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영란법 3개월 동안 '지역 명물'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남의 유명 음식 중 하나인 '장흥 한우삼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만원을 맞추다 보니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 중 일부를 주문하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전과 시행 이후 한 달을 비교해 보니, 장흥지역 한우 판매 두수는 930두에서 720로 줄어드는 등 장흥토요시장 한우삼합 전문점의 매출이 줄고 있다.

장흥 한우삼합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고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구입해 식당에서 먹는 방식인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모두 사면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3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재 장흥지역 한우삼합의 평균 가격은 3만50000원이며, 이 중 한우는 2만원(평균), 키조개 1만원, 표고버섯 500원이다. 한우삼합을 함께 즐기려면 3만원 규정을 넘기 때문에 키조개나 표고버섯을 사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전후 장흥지역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키조개 105t에서 52t으로 감소, 표고버섯 17t에서 10t으로 감소했다.

백화점 선물세트도 변했다. 김영란 법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크게 늘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돼지고기 명절 세트를, 신세계도 대표 서민음식인 고등어를 선물 세트로 선보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은행, 여수 죽림지구에 142번째 영업점 개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27일 여수시 죽림지구에서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2번째 영업점인 '여수죽림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는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을 비롯해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주식회사 와이엔텍 회장), 김철희 주식회사 대신기공 대표이사, 정석만 주식회사 삼흥전력 대표이사 등 여수지역 주요 기관장들과 우량기업 CEO들이 함께 참석했다.

여수죽림지점은 신성장지역 점포 확충을 통한 전남지역 영업력 강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금융이용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향후에도 광주·전남지역 신성장지역과 인구밀집 지역에는 영업점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I 여파…계란 한판에 8800원

계란 생산량 20% ↓…산지가 전년보다 77% 폭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공급량이 크게 줄면서 계란 가격이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계란(특란) 한판(30알) 평균 소매가격이 7000원을 돌파한 7037원을 기록했다.

계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선 것은 aT가 계란 소매 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2일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올라 26일 현재 7510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한판에 8800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8%까지 치솟은 것이다.

산지 계란 가격은 한판에 551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나 폭등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계란 가격 폭등은 AI 피해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계란 가격을 올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계란값을 평균 5% 인상한 데 이어 15일 5%, 17일 6% 인상했으며 이번에 또 가격을 올렸다. 롯데마트도 홈플러스와 같은 7290원에 계란을 팔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내년 내수 전망도 '암울'

유통업 종사자 60% "소매시장 성장률 0~1%대 그칠 것"

유통업계 종사자 과반수는 올해 소매시장이 0~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국내 유통·제조업계 종사자 215명을 대상으로 '2017년 소매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0.2%는 내년 소매시장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0~1%대 신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2~3%대 성장할 것이라는 답변이 29.6%로 뒤를 이었고, 4~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답변은 4.6%에 불과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셈이라고 체인스토어협회는 분석했다.

2017년 가장 주목해야 할 유통 이슈로는 적자경영 중인 소셜커머스 업계의 동향(26.2%)과 김영란법 여파(18.1%)가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다.

내년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업태로는 최근 '나홀로 성장'중인 편의점(24.5%)이 1위로 꼽혔고, 대기업이 잇달아 출점하는 복합쇼핑몰(20.4%)이 2위로 꼽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2.17 (+4.42)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18.38 (+3.22)
- 환율 (USD) 1207.60원 (+6.20)

27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필립에셋 비전선포식에서 엄일석 대표가 종합자산관리 전문업체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밝히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필립에셋 제공〉

필립에셋, 자산관리 새 비전 선포

부동산·문화콘텐츠로 범위 확대…안전 투자법 제시

과학적이고 공개적으로 장외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필립에셋(대표 엄일석)이 27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자산관리 전문업체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필립에셋은 거래소·코스닥·제3시장·비상장시장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투자자에게는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유망기업에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자금유입을 돕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과 증권시장은 정보의 부재와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일반인들의 투자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필립에셋은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장외주식과 함께 보험·크라우드펀딩·부동산, 문화컨텐츠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고객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계열사인 '필립엔터테인먼트(대표 전창걸)'를 만들어 영화 제작을 지원 하는 등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호남최초의 크라우드펀딩회사인 '필립 크라우드펀딩(대표 박성주)'도 설립해 일반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검증된 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필립인슈어런스'의 설립으로 고객의 보장자산까지 함께 관리해 자산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엄일석 대표는 "무엇보다도 장외주식 거래 시 문제로 지적돼 왔던 비상장기업의 과학적, 객관적, 전문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일류 종합 자산관리 전문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광주시 상무지구에 본사를 둔 필립에셋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순천, 창원 등 전국 7개의 지사 12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탄탄한 자산관리 전문업체다. 필립에셋이라는 회사명 중 필립은 반드시 필(泌)과 설 립(立)으로 '반드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남경중공업, 아스콘 품질관리 '광주시장상'

남경중공업(대표 최제필)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주관의 '2016년 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아스콘 품질관리 최우수업체로 선정돼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가 납품 중인 아스콘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남경중공업은 최우수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최제필 남경중공업 대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중공업은 친환경 재생아스콘 관련 '환경표지인증', 'GR인증'을 취득했으며, ESRA(재생·중온아스콘), SRA(고강도 저소음 아스콘) 등 고품질 특허 제품 아스콘을 광주전남 지역에 납품·시공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